

성도의 교제 |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

○ 환영

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.

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,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.

○ 알림

1.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.

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

2. 2025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.

실천사항 1: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.

실천사항 2: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.

3. 사순절(3/5-4/19):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.

4. 온라인 새벽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. 매주 수, 목, 금 오전 6 시 YouTube (신명기)

5. 토요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.

6. 마태복음 5 장 14 절 (2025 년 3 월 성경 암송 구절)

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

7.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.

Cheque Pay to: The Refreshing Church

E-Transfer: [rwgchurch@outlook.com](mailto:rwgchurch@outlook.com)

○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

E-mail: [rwgchurch@outlook.com](mailto:rwgchurch@outlook.com)

Homepage: [rwgchurch.ca](http://rwgchurch.ca)

Tel.: 647-989-2546

Address: 2630 Inlake Court, Mississauga, ON L5N 2A7

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

홈페이지



YouTube 채널



목요성경공부



카카오톡 채널



대한예수교장로회  
실만한물가교회  
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

주일 예배	오후 1:30	인도: 김윤규 목사
목도 Choral Prelude		다함께
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기원 Invocation		인도자
*찬송 Hymn	23 장 (통 23)	다함께
*신앙고백 The Apostles' Creed		다함께
*교독문 Responsive Reading	124. 사순절 (1)	다함께
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	찬 191 / 189 장	다함께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봉헌 및 기도 Offering & Prayer	214 장 (통 349)	다함께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	요엘(Joel) 2:25-32 (p. 1273)	인도자
설 교 Sermon		김윤규 목사

여호와와 이름 부르는 자

The one who call the name of the Lord

*찬 송 Hymn	182 장 (통 169)	다함께
*축 도 Benediction		김윤규 목사

\*는 일어섭니다

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

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

(롬 5:1)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

## || 말씀 노트 ||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

(욘 2:25)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(욘 2:26)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

(욘 2:27)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

(욘 2:28)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

(민 11:29)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

(욘 2:29)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

(욘 2:30)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(욘 2:31)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(욘 2:32)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

(막 13:24)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(막 13:25)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(막 13:26)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

## || 목회와 삶 || 인내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

“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. 인간은 파멸 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.” (“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,” he said. “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.”)

헤밍웨이는 『노인과 바다』에서 패배할 줄 모르는 인간의 숭고한 모습을 산티아고의 모습을 통하여 표현합니다. 산티아고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매우 근면한 삶의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.

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탁월한 경지에 이르면 그 자리에서 향기가 난다고 생각했는데, 그 향기가 바로 타인이 자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매력이고 이것을 ‘티메’(time: respect)라고 불렀습니다.

산티아고가 84 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산티아고와 함께 있었던 소년의 부모는 산티아고를 ‘살라오’(salao)라고 불렀습니다. ‘살라오’는 스페인 말로 ‘가장 운이 없는 사람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산티아고가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존경심을 불러 일으킵니다.

성경에서도 세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.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은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. 만일 누구라도 느브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. 이러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브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고,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의해 느브갓네살 왕에게 고발당하였습니다. 당시 바벨론의 지방 관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 앞에서 굴복해야 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불타는 용광로를 선택하였습니다.

인간의 힘에 의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침해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에 천사를 보내셔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 주셨습니다.